

투데이 칼럼

이제는 “불나면 대피 먼저”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기 및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아님이 한 다.

올해 초 천안 차암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학교엔 90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있었으나 다행히 사상자가 없었다.

평소 이 학교 학생들은 화재에 대비하는 모의훈련을 통한 학습으로 화재현장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 국립고시원 화재를 기억해 보자.

불이 난 3층 계단 부근의 방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화재가 나다 이 사실을 먼저 고시원 전체에 전파하지 않고 10분 넘게 혼자 불을 끄려다 실패하였으며, 결국 7명의 사망



조용주

남원소방서장

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이 세입자가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먼저 알리고 대피를 유도했다면 어땠을까?

화재 발생 후 생(生)과 사(死)를 가릴 수 있는 대피! 불이 나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며, 연기 확산 및 유독가스로 인해 탈출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촉박하다. 그래서 미국 등 외국에선 소화기 교육이 아닌

대피 관련교육 및 캠페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이들에게 소화기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

만약 아이들이 화재 발생 시 불을 끄느라 대피가 지연되거나 도중에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는데, 소화기로 불을 못 끄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을 가진다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소화기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하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에 집중하고, 차차 성장하면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하되,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토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화기로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면 탈출구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화기를 사용하고, 옷(몸)에 불이 붙으면 뛰지 말고 stop(멈추고)drop(눕고)and roll(롤)을 기억하면 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먼저 할까? 대피? 아님 소화기 사용?'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이다.

정답은 없다. 또한, 동일한 화재 상황 역시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불나면 대피 먼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벨라루스서 1812년 나폴레옹 베레지나 전투 재연



24일(현지시간) 벨라루스의 군(軍) 역사 동아리 회원들이 수도 민스크에서 동쪽 약 115km 떨어진 브릴리 마을 인근에서 1812년대 군복을 입고 나폴레옹 전쟁의 주요 전투 중 하나인 베레지나 전투를 재연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산타 마라톤 참가한 산타 복장 시민들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2019 산타 5K 마라톤'이 열려 산타 복장의 참가자들이 느긋하게 걸거나 달리고 있다. 이날 약 400명이 산타 옷을 입고 연례행사에 참여했다.

사설 새만금 재생에너지 불확실성 해소해야

새만금 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힘내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경제 투어 이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군산 새만금 현장을 찾아왔는데 그 느낌이 좀 묘하다. 그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 시장과 김현숙 새만금 개발청장이 참석했는데도 그랬다.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에 대해 불만을 말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어찌 미덥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탄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믿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나선 까닭이다. 예전에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지원을 말했는데 그것을 뒤집었으니 이번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서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도 미덥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할 말이 있다.전북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다들 군산 문제를 괴로워하며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서 알수 있는 것처럼 지역 경제의 발전 구축은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발전

프로젝트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중에 시급히 꺼야 하는 발등의 다른 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현재 전북의 최대 현안은 새만금 발전을 통한 군산 살리기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군산 경제가 무너진지 오래인 지금 갈수록 힘 들어지고 있는 중에 전북 발전 현안이 터덕거리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전북 지역은 미래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꼭 넓게 뛰어야 한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지금,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다들 생각해볼 일이다. 새만금사업 말고는 모두 고만고만한 게 사실이 아니냐는 물음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 현안 추진에 힘내야 한다. 내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던 것을 말이다.

정규직 선발, 더 활성화시켜야

전북도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정규직 선발을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 젊은 인재들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반박해 당부하는 것이다. 시일이 지난 후 실적을 보니 좀 뜻밖이라서 말이다. 전북도 이하 모든 시군이 지역 인재를 동용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실적이 미미하다.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들이 매우 많은데 그걸로 할 일을 다한 것이라 여겨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공채 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것도 꾸준히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그래야 한다. 고용 활성화는 한 때의 반짝 쏘가 돼서는 안 된다. 도내 취업률이 형편 없는 지금, 전북도에게 촉구할 것은 분명하다. 정규직 고용 분위기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언론사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출 때만 협조하는 척 하는 것은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 현재 도내의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어선 현실을 꼭 바로 보아야겠다.

전북도에게 여기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정규직 고용 활성화 분

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는 오늘날, 청년고용문제에 더욱 마음을 써 달라는 당부이다. 아마 올해도 우리 지역은 고용률이 전국의 밑바닥 수준일 터이다. 다시 당부해 말하거나 전북도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일자리와 관련해 전북도는 청년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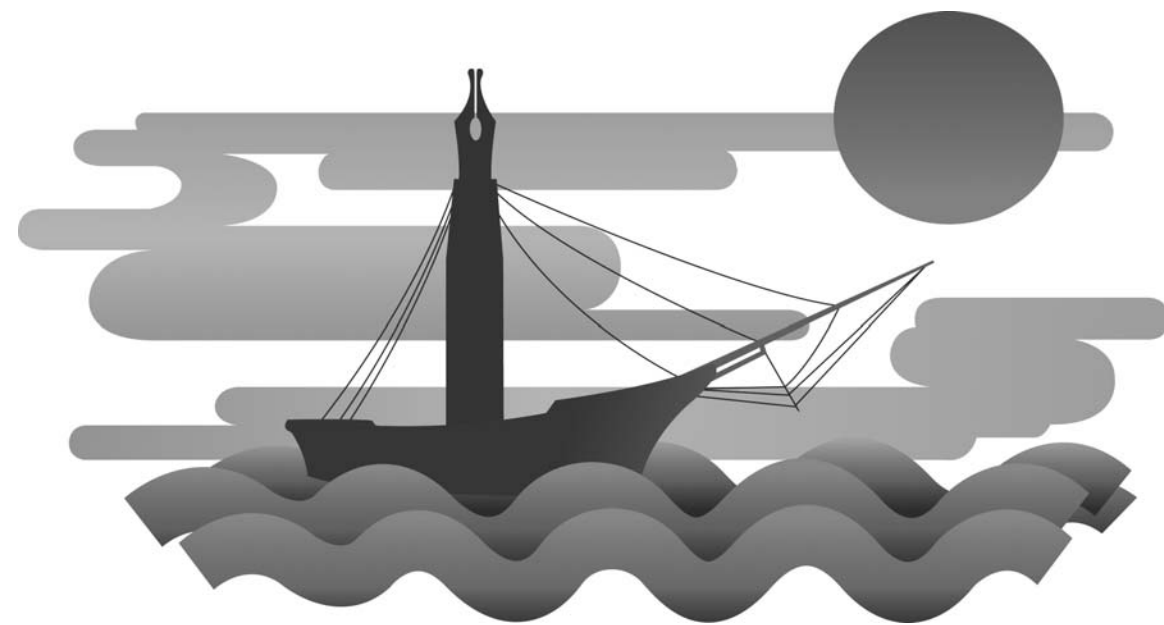
도내 젊은이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은 전주시를 비롯해 다른 시군 단위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여야 할 정신 태도이다.젊은 인재 등용에 대해 말만 할 게 아니라 이야기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여야 한다. 공채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해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큰 자치단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 다른 시군들의 분발을 이끌어내야 한다. 전주시도 전북도 못지 않게 그 책임이 막중하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들 나서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